



# “내 아파트 가치 내가 올린다” 전면에 나서는 입주예정자들

### 입주 전부터 협의체 구성...명칭 변경·조경 개선 등 의견 내나 업계 “10년 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서로 협조하는 사례 늘어”

“아파트가 유일한 자산인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입주예정자협의회’에 가입하면 정보도 공유하고 아파트 가치를 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이모(29·여)씨는 최근 시간이 날 때마다 연신 올려대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확인하느라 바쁘다. 단체 대화방의 정체는 이씨가 올 3월 분양 받은 아파트의 계약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일명 ‘입주예정자협의회’다.

단체 대화방 참여자는 560여 명으로 아파트 분양 세대수인 약 900세대의 62%나 된다.

단체 대화방 입장은 계약자가 아니면 불가능한데, 계약서를 찍어 인증을 받아야만 대화방 비밀번호를 전송 받을 수 있다.

이 아파트의 입주는 오는 2026년 1월이지만 이 단체 대화방이 개설된 건 5개월가량 전으로 이들은 아파트 관련 정보 공유 목적 이외에도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건축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가치를 올리려는 온갖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토론하는 공간이다.

대표적으로 아파트 명칭 변경, 문주 교체, 조경 개선, 물놀이 풀 설치 등이다.

이 씨는 “분양가만 6억원에 가까운 아파트다. 아파트 붕괴 사고, 철근 빼먹기 등 불량품질 사례들이 잇따르면서 초기부터 계약자로서 현장을 감시, 견제하고자 한다”며 “뿐만 아니라 아파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도 제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씨를 포함한 입주예정자협의회는 올해 벌써 세 차례 아파트 근처 카페에서 회의를 진행했다. 또 두 차례에 걸쳐 건설 현장을 찾아 현장소장을 만나기도 했다.

현장소장은 광주일보와 통화에서 “계약자들이 재산을 지키려는 움직임이 나쁘게 보지 않는다. 조만간에 현장 견학도 함께할 예정”이라며 “다양한 요구조건이 있지만 수용 가능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들어줄 생각”이라고 말했다.

과거 시공사에 아파트 건축을 맡고 맡겼던 계약자들이 입주 전부터 협의체 구성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아파트 가격이 평당 수천만원을 넘어가는 데다 빛을 내서 마련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탓에 ‘전(全) 재산’인 아파트 가치를 올리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한은과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2년 국민 대차대조표(잠정)’ 자료에서 가계 및 비영리단체의 자산·부채 구성을 살펴보면 주택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51%였다. 주택의 자산 구성비는 지난 2015년 48.1%였으나 줄곧 상승해더니 50%를 넘어섰다.

특히 주택 가격이 무섭게 오르면서 그 비율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만 하더라도 지난 2015년 ㎡당 183만5000원이었던 주택가격은 올 10월 326만7000원으로 78% 올랐다.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생겨날 만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건설업계도 아파트 분양이 끝남과 동시에 예비 입주자 단체를 주시하는 모양새다.

지역의 한 중견 건설업체 관계자는 “10여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현상”이라며 “시공사와 예비 입주자가 대립하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좀 더 나은 결과를 위해서 서로 협조하는 경우도 여럿”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은행, 중도해지 불이익 없는 예금 출시

### 3~6개월 연 3.5%...최대 4.0%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중도해지 불이익이 없는 ‘중도해지 관촬Wa예금’을 출시했다고 23일 밝혔다.

‘중도해지 관촬Wa예금’은 3개월이 지나면 일정금리를 되돌려 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 전에 해지할 시 약정이율을 모두 받을 수는 없으나, 3개월 경과 시 기존보다 높은 예치기간별 중도해지 금리를 제공한다.

예치기간 3-6개월 미만은 연 3.5%, 6-12개월 미만은 연 3.8%, 1년 만기 시에는 연 3.9%를 제공한다.

광주은행은 오는 2024년 1월까지 상품 출시 기념 우대금리 이벤트를 열어 가입한 계좌 중 만기해지인 경우에 한해 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하고 있어, 최대 연 4.0% 금리를 제공받을 수 있다.

예금은 일 인당 5개 계좌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최소 10만원부터 최대 1000만원까지



예치할 수 있다. 또 비대면 전용 상품으로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광주은행 스마트뱅킹 앱 또는 광주은행 모바일웹에서 가입할 수 있다.

박대하 광주은행 디지털기획부장은 “10만원 소액으로도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이다. 단기간에 자금을 운용하려는 고객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출시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고객 친화적 상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현대차, 국내 최대 전력구매 계약

### 울산공장 태양광 재생에너지 64MW 조달 2025년까지 연 3만9천t 탄소절감 목표

현대차는 2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현대건설과 태양광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PPA는 전기 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자로부터 재생에너지를 사는 제도로, RE100 이행 수단 중 가장 널리 통용된다.

현대차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5년까지 울산공장에 태양광 재생에너지 64메가와트(MW)를 조달할 계획이다. 이는 국내 기업이 체결한 PPA 중 최대 규모로, 이를 통해 연간 3만9000t의 탄소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회사는 전했다.

이번 협약은 현대차가 선포한 ‘2045년 RE100 달성’ 방안의 하나로 체결됐다.

RE100은 글로벌 비영리단체인 더 클라이밋 그룹과 글로벌 환경경영 인증기관 CDP 등을 중심으로 2050년까지 기업의 사용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자고 촉구하는 캠페인이다.

현대차는 지난해 4월 기아와 현대모비스, 현대위아와 함께 RE100 이니셔티브 가입을 승인받았다. 또 글로벌 RE100 권고 목표인 2050년보다 5년 빠른 2045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이라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현대차는 PPA 외에도 2025년까지 국내 사업장 부지 내 태양광 자가발전 인프라 구축에 2천억 원 이상을 투자한다. 이를 바탕으로 오는 2030년까지 국내외 전체 사업장 전력의 6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방침이다.

국내 사업장의 경우 2025년 재생에너지 10%, 2030년 재생에너지 30% 사용 달성을 위해 유휴 부지와 건물 지붕에 태양광 자가발전 설비를 구축한다.

현대차는 이러한 시설 투자를 기반으로 2030년까지 태양광 자가발전은 150MW 이상, PPA는 300MW 이상을 확보할 방침이다.

해외 사업장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 사용을 추진한다. 자가발전과 PPA,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등이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실제로 현대차 체코와 인도네시아 공장은 각각 지난해와 올해 REC 구매를 통해 재생에너지 100% 사용 달성을 완료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전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사업장 재생에너지 전환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최태원 상의회장, 파리 찾아 엑스포 부산 유치전 합류

### “찾을 나라는 많고 시간은 없고”...열흘간 지구 반바퀴 강행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2030 세계박람회(엑스포) 개최지 선정 투표를 앞두고 프랑스 파리를 찾아 유치전에 합류했다.

23일 대한상의에 따르면 이미 이달 초 프랑스 파리에 도착한 최 회장은 파리를 거점 삼아 국제박람회기구(BIE) 회원국이 몰려 있는 중남미와 유럽 등 총 7개국을 방문해 유치 활동을 벌이고 있다.

비행 거리만 2만2000km로, 지구 반바퀴에 이르는 강행군이다.

양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외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23일 파리에 도착해 2박 3일간 열띤

유치전을 펼칠 계획이지만, 최 회장은 24일부터 ‘파리 유치전’에 동참할 계획이다.

최 회장이 막판까지 장거리 비행을 불사하게 된 이유는 해당 정부에서 한국의 전략을 더 자세하게 들여보고 싶다는 방문을 요청하거나 표심을 결정하지 않은 부동산 국가를 파악해 한국 표로 가져오기 위해서다.

최 회장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 주로 만나는 이가 국가 정상이다 보니 일정도 종잡을 수 없다는 것이 대한상의 측의 설명이다.

엑스포 유치 활동 일정이 시시각각 변하며 윤 대통령의 영국 국빈 방문도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유치위가 출범한 지 550여일이 지났지만, 그동안 회원국 180여개국 정상과 일일이 약속을 잡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보니 유치전 전면에는 최태원 회장이 나서고, 정상급 외교전에는 다른 그룹의 총수들이 지원에 나서는 업무분장이 이뤄지고 있다는 후문이다.

대한상의 측은 “투표일을 5일 앞두고 한표, 한표가 중요한 때”라며 “세계도 경영진 모두가 해외에서 회원국 대표들을 만나 총출동 득표전을 펼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2030 엑스포 유치 도시는 오는 28일 파리에서 회원국 182개국의 투표에 의해 결정된다. 부산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이탈리아 로마와 3표만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 양동구 광주국세청장, 현장 의견 수렴

### 북광주세무서 등 관내 15곳 방문 “소상공인 세무부담 완화할 것”

광주지방국세청은 23일 양동구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지난 9월 북광주세무서를 시작으로 이날 남원세무소까지 관내 15개 세무서를 찾아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고 밝혔다.

양동구 광주국세청장은 주요 현안업무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직원을 격려했다.

양 청장은 직원들에게 업무 처리 시 납세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업무를 처리하는 등 납세자 권익 제고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양 청장은 또 직원 합숙소 환경개선과 인력 부족 문제 등 관서별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꾸준한 관심과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양 청장은 세무관서 방문과 연계해 광주와 전남·북 지역상공회의소 간담회와 산업단지 방문 등을 통해 지역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이들의 불편사항을 검토하며 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양 청장은 “광주국세청은 국내외의 복합위기로



양동구(가운데) 광주국세청장이 해남세무서를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세무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또 유용한 세무정보가 납세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되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납세자의 어려움과 궁금증을 해소하고 세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한 현장소통 간담회를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14.96(+3.26)
↑ 코스닥	815.98(+1.37)
↓ 금리(국고채 3년)	3.644(-0.022)
↓ 환율(USD)	1297.50(-3.00)

## 삼성전자 휴대폰, 명품을 입다

### ‘갤럭시 Z 플립5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 공개

삼성전자는 23일 패션 브랜드 ‘메종 마르지엘라’와 협업한 ‘갤럭시 Z 플립5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사진)’을 공개했다.

‘갤럭시 Z 플립5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갤럭시 Z 플립5’의 후면 디자인에 착시 그래픽을 적용해 외면과 내면의 본질을 중요시하는 메종 마르지엘라의 디자인 철학을 담았다.

또 메종 마르지엘라 디자인이 적용된 플립 레더 케이스와 플립스튜디오 케이스도 함께 제공한다.

플립 레더 케이스 검은색 가죽에 하얀색의 포켓 패턴 스티치 디자인을 적용해 메종 마르지엘라 특유의 미학을 적용했다.

플립스튜디오 케이스는 플립스튜디오 카드 2종과 함께 제공한다. 메종 마르지엘라 고유의 패턴 드롭 디자인 카드와 납땜이 새겨진 실버 카드의

NFC 기술로 ‘갤럭시 Z 플립5’의 커버 스캔 ‘플렉스 윈도우’에 차별화된 테마를 선보인다.

특별한 패키지 박스도 함께 제공된다. 패션 디자인 장인의 수납함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된 패키지 박스는 원단 질감의 종이 소재에 메종 마르지엘라 고유의 시침실을 표현했다.

‘갤럭시 Z 플립5 메종 마르지엘라 에디션’은 한국, 중국, 홍콩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된다. 국내는 삼성닷컴에서 추첨을 통해 판매가 진행된다. 가격은 249만 7000원이며, 512GB 스토리지 모델이다.

구매를 원하는 고객은 11월 3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삼성닷컴(https://www.samsung.com/sec)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당첨자는 12월 1일 오전 9시에 발표된다. /연합뉴스

